

광양시, 전기충전시설 운영실태 일제 조사

수리 필요 사항, 시설물 관리자에 신속 조치 전기차 보급률 맞춰 충전시설 201기 운영 중

광양시는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전기차 이용자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일제 조사를 7월 26일부터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기충전기의 정상 가동 여부와 시설물의 적정 설치, 일반 차량 불법주차 등 충전시설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공용 전기충전기 고장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관리상 미흡사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이용률 증대를 위해 올해 6월까지 전기차 566대(승용 429, 화물 132, 버스 5)에 108억 2,100만 원을 지원했고, 전기차 보급률에 맞춰 전기충전시설 201기(급속 38, 완속 163)를 운영 중이며, 올해 비공용 완속충전기 108개를 지원하고자 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다양 배출되는 석유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 전환을 통해 광양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수송체계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확대 전환을 통해 광양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군, 여름철 비대면 영농교육 추진

시기 맞는 핵심 정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SNS 통해 제공

보성군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여름철 주요 영농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는 비대면 영농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부터 벼, 고추, 감자, 키위 등 보성군 주요 작목의 종합적인 당면영농기술 실천사항을 비롯하여 고추 병해충, 감자 열매피해 등 시기에 맞는 핵심 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각종 SN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여름철 영농 교육은 오는 8월 6일까지 실시되며, 농업기술센터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육성이 장려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등에 대한 영농 노하우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카드뉴스를 제공받은 최00 씨는 “적기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못해 그동안 농업경영에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매일 제공되는 다양한 카드 뉴스를 통해 시기별, 작목별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가 큰 호응을 얻은 것 같아, 향후에도 다양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란 주요 정보를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재구성해 보여주는 뉴스 형태로, 신문이나 잡지 등 기존 매체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 페이지 분량의 카드 형식으로 제작돼 SNS에서 손쉽게 공유·전파될 수 있어 새로운 정보 공유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성·김철순기자**



여수시, 미평공원 일부구간 내달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우회도로 운영

양지고가 철거 앞두고 지하보도 개설공사 진행



여수시가 양지고가 철거 앞두고 미평공원 이용객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 지하보도 개설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전라선 옛철길 미평공원 일부구간을 통제하고 약 4개월간 우회도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공사중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공사추진을 위해 구미평역에서 나주소금까지 400m 구간을 8월 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통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이 구간을 지나 시민과 관광객들은 인근 이면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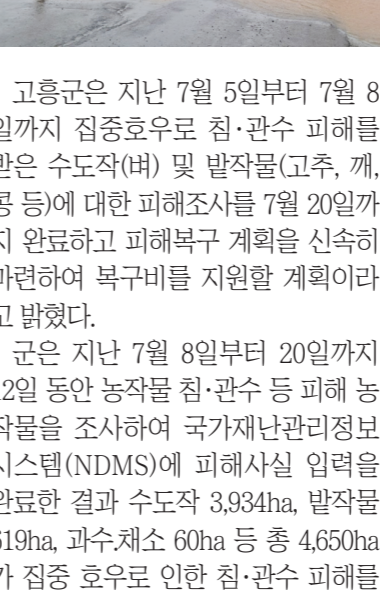
여수시는 우회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내간판, 현수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SNS, BIT(버스정보안내기) 등으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회도로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므로 안전을 위해 차량은 서행해 주시고 공원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공사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양지고가교는 전라선 운행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과 철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995년에 설치됐다. 철도가 없어지면서 기능이 상실되었고, 고가교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등 주민 다수가 철거를 요구해 왔다. **여수·오상호기자**

고흥군,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계획 마련

농작물 침·관수 4650ha 피해조사 마무리 등 지원대책 마련



받은 것으로 집계돼 신속하게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 농작물 예상 복구소요액을 38억원으로 정부에서 확정 승인이 되면 차질 없이 피해 농업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농작물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 최소화하고 피해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피해 조사가 완료된 만큼, 피해 복구비 재원 확보와 피해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조생종 벼 수확시기가 8월 말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벼 출수기부터 생육 관리 및 작기 병·해충 방제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일환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참가자 모집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원이 있는 식당’을 만든다.

시는 종합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의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8월 3일까지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정원이 있는 식당’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정원을 기획, 디자인, 시공, 관리하며 순천시의 정원문화 및 생태미식 콘셉트를 활용해 도시경관 및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 내 식당을 운영하는 단체(영업주 포함 최소 3인 이

상)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 규모는 15개 업소 이내로 단체당 200만원의 보조금과 정원 전문가 컨설팅(3회)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장천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장천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jcdurban@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좋은 사람과 함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우리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재생과(061-749-3472) 또는 장천현장지원센터(061-749-360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